서 언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개방화 및 디지털화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구조조정되는 중에도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탄생되면서 기업문화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종신고용에 기초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대신에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이 더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편으로 생활위험 및 노후보장을 위한 주요한 제도인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도 유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그 동안 종업원의 노후소득을 위한 퇴직금제도가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연금제도로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처한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개념조차 생소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및 세제상의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업원복지 공급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종업원복지제도는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계기로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제도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존재하나, 해외의 주요국에서 종

업원복지가 운영되는 실태에 대한 파악도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종업원복지에 대한 연구는 해외의 운영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복지제도의 운영주체 및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과 일본에서 종업원복지제도가 운영되는 실태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작성되었다. 또한 외국의 사례조사에 그치지 않고 개괄적이나마 우리나라의 종업원복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및 향후 종업원복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보험회사의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필자들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아직 종업원복지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나,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종업원복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오영수 팀장과 박홍민 부연구위원,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이한덕 교수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교수의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도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보고서를 심사해주신 외부의 전문가와 교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1년 6월

保險開發院
院長 朴性昱